

# 올 교직원 관사 관리·운영 계획 수립

### 도내 교직원 관사 단독주택 포함 총 1219세대

### 기능 상실 미활용 관사 해소 적극 추진 등에 방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 관사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교직원 관사 관리·운영 계획을 관사 보유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안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당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도내 교직원 관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단독주택 269세대, 아파트 13세대,

연립관사 947세대 등 총 1,219세대다. 이번엔 수립한 관사 관리·운영 계획은 △공공적이고 투명한 살거주자 중심의 관사 운영 △주거적인 관사 관리를 통한 관사 환경 및 주거 여건 개선 △관사의 기능을 상실한 미활용 관사 해소 적극 추진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한 관사 신·증축 지양에 방점을 뒀다.

먼저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는 직급 위주 배정을 지양하고, 간헐

적으로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교직원은 퇴거 조치한다.

교육지원청 통합관사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를 입주 대상으로 포함하고,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살거주를 여부를 확인한다.

또 관사 보유 학교 및 통합관사 보유 교육지원청은 월 1회 자체 살거주 점검을 한다.

미활용 관사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사용 연수가 경과한 노후관사는 처분해 유지비용 절감 및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입주자가 없어 활용되지 않으나 상태가 양호한 관사는 돌봄교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해 적극 활

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선화관에서 지역교육청 관사 업무 담당자 교육을 열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학교에서는 관사 관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앞으로도 살거주자 중심의 관사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국내외 전문가와 미래교육 비전 공유

### 미래교육연구원, 내달 11~12일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 교원 직무연수 연계... 내달 3일까지 희망 교원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정기)은 오는 2월 11~12일 이틀간 'AI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교육연구원이 주최하고,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AI 디지털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AI 기술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모색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다.



미래교육연구원과 전북인공지능고의 긴밀한 협업으로 전문성을 높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AI 디지털 교육 정책과 트렌드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동계 교원 에듀테크(AI·디지털) 직무연수와 연계해 도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연수는 줌을 통한 온라인 연수로 운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오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전북교육연수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기 원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AI 시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전북 교육의 새로운 전락을 도모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 교육에 관심있는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대 출신 이재환 박사

### 일본 고베대 신임 교수 임용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산업공학과 졸업생 이재환 박사(11학번)가 일본 명문 국립대학인 고베대학교 대학원 농학연구과 조교수로 2025년 12월 1일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재환 박사는 2011년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생산디자인공학과(현 산업공학과)에 입학해 2017년 2월 졸업했다. 학과 재학 시절에는 이충호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장학생으로 활동하며 공학적 기초와 연구 역량을 탄탄히 다졌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일본 유학과 연구 활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학과 졸업 후 2017년 일본으로 유학한 이재환 박사는 돗토리대학교 대학원 농학연구과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돗토리대학교 농학부 부속 필드 사이언스센터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딥러닝 모델 YOLOv3를 활용한 일본 배(Japanese Pear) 화아(꽃눈) 검출 시스템 개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한 과수 활력 평가 방법 등 정밀농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 박사는 2023년 일본 간사이 농업기계·식품공학회(Kansai Society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Food Engineers)로부터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LIDAR와 근적외선(NIR) 카메라를 융합한 과수 생육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 등 차세대 Physical AI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환 박사는 돗토리대학교 재학 시절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와 돗토리대학교 농학부 간 학문·학생 교류 MOU 체결을 주도해 장학생 선발 등 장학 지원, 공동 학술활동 등을 통해 현재까지 양 대학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22일 오후 2시 2025년 창업중심대학 네트워크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창업기업의 성과 확산과 권역 내 창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 전북대 창업중심대학 기업들, 지난해 1324억 총 매출 성과

### 투자유치·고용·특허 등 괄목할 성과... 성과공유회 개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엔알비', 코스타드 상장 '대표 성과'

지난해 전북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80개 창업기업이 총매출 1,324억 7,980만원, 투자유치 29억 8,941만원, 순고용 118명 창출 지식재산권 143건 출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 교수)은 지난 22일 오후 2시 2025년 창업중심대학 네트워크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창업기업의 성과 확산과 권역 내 창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평가와 성과 점검, 네트워크를 통해 한 해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창업중심대학 운영 경과 보고와 함께 우수 창업기업 시상식이

연계 현장 예로서황을 청취하고, 권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후속 지원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업가정신 함양과 성공 사례 중심 강의, AI 산업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따른 사업 기회 분석,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민간자금 등 자금 확보 전략 안내 등 실무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창업기업들의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전북대는 이번 성과교류회를 통해 창업기업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호남권 창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후속 지원사업 연계 및 사업 운영 전략 고도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체계적 마무리와 성과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경수 전북대 창업지원단 단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는 전북 청년창업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권역 내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대 평생교육원, 내달

###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황길연 교수)이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1학기 교육강좌는 3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운영된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교육복지학부 생활공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어문학부, 예술학부, 직업교육학부 등 6개 학부에서 187개 강좌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전문과정을 제외하고 전북대 학부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명예학생 과정도 함께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선택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2026학년도 1학기 전북대 평생교육원 수강신청은 전북지역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https://cc.jhu.ac.kr/), 전화(063-288-0022), 방문(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3)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우석대, 재학생·지역 청년 대상 '1박 2일 취업캠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라한호텔 전주에서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취업캠프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급변하는 취업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라한호텔 전주에서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취업캠프를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프레지더 카드드를 이용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ChatGPT를 통한 감정 분석 및 직무 탐색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한 직무를 탐색하고 AI 도구를 활용해 자기 이해와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주고용센터 직업진로지도팀과 연계한 청년고용정책 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국민취업자

원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받으며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용덕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많다”라며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정부의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주·영재복 기자

##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범)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지난 23일 김제 학생·예울미래공간 다움에서 진행했다.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EBS를 통해 다양한 공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관리하고, 자기주도학습 공간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사교육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센터장 1명, 학습코디네이터 1명, 행정지원인력 1명이 배치하여 학생 개별 진단 검사, 출결 및 학습관리, 학습플래닝 지도, EBS 단추를 통한 AI 학습진단, 개념/심화학습, EBS 강의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진로설

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 지역 각 학교에서 신청한 중학교 2·3학년과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 25명 내외를 선발하고, 운영 방안 등을 향후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제교육지원청은 EBS의 지원과 별도로 관내 학습코칭 전문가와 학생들을 연결하여 1:1로 학습코칭 상담도 진행하며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올해 학교 늘봄 운영 안정·전문성 강화

### 전북교육청,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분청 2층 강당에서 1월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100명과 2025년 신규임용 늘봄지원실장 5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수는 학교 늘봄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늘봄지원실장의 실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2026 늘봄 정책 및 운영 방향 이해 △3월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 방안 △지역 연계 협의체 운영 방안 △3학년 프로그램 이용권 △2026 늘봄학교 길라잡이 안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

로 구성됐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계한 통합 돌봄·교육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간 50만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이용권은 학교 안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교재·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늘봄학교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 전북교육청, 신규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신규 감사담당공무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감사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감사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감사담당공무원 윤리강령과 감사업무의 이해 △확인증 및 감사

보고서 작성법 △공무·학사 및 회계 분야 주요 감사 사례 △공공감사시스템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엔 감사관이 윤리강령과 감사업무 전반을 직접 강의하고, 이어 감사원 박진철 수석감사관의 확인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법 특강이 진행됐다.

또, 교무학사·회계 분야는 실제 감사업무 담당자가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재훈 기자